

## 하네토의 개요

하네토라고 불리는 춤꾼은 네부타 마쓰리의 분위기를 복돋우고 관중을 열광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네토'라는 명칭은 '하네루('뛰어오르다'라는 뜻의 일본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네부타에서 이 말은 '춤꾼의 활발한 움직임'과 '악운을 날려버린다'라는 2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부타의 각 운행단체에는 전속 하네토가 있으며, 이와 함께 최대 2,000 명에 이르는 일반 참가자가 하네토로 참여합니다. 하네토는 관중 앞을 지나가면서 '랏세라'라고 신명을 돋웁니다. 이는 관중들에게 참가를 독려하고 함께 즐기라고 호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야시카타(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북 리듬에 맞춰 하네토의 리더가 메가폰이나 마이크를 사용해 큰 소리로 선창을 하고, 다른 하네토도 큰 소리로 구호를 반복합니다.

하네토에게는 정식 복장이 있습니다. 흰 바탕의 유카타(여름용의 간단한 기모노)에 핑크와 블루의 화려한 타스키(어깨띠)를 두릅니다. 옷차림이나 신발, 머리띠에 방울을 묶어 가능한 한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합니다. 하네토는 지그(Jig)와 같은 춤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은 리더와 그 단체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부타의 선도역과 마찬가지로 하네토의 리더도 피리를 불어 하네토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일제히 춤을 추거나 뛰거나 뛰어오르거나 하는 움직임을 하도록 하네토에게 전달합니다. 정식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네토로 축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부타를 가까이서 보고 싶거나 축제가 진행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즐기고 싶다면 실제로 참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